



“한국+네덜란드, 퓨전축구로 승부수”

“2007년 아시안컵 우승과 2010년 남아공월드컵 8강이 목표다”

거스 히딩크 감독을 시작으로 요하네스 본프레레 감독과 딕 아드보카트 감독에 이어 4번째 네덜란드 출신 감독으로 ‘태극호’의 지휘봉을 잡은 핼 베어벡(50)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내년 아시안컵 우승 첫 목표”

베어벡 감독은 28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2년 간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어 나갈 청사진을 공개했다.

질은 감색 양복을 입고 웃는 얼굴로 기자회견장에 들어

■ 핼 베어벡 감독 기자회견

선 베어벡 감독은 “굿모닝(안녕하세요)”라는 첫 인사말을 던진 뒤 “앞으로 5개월간은 아시안컵 축구대회 본선에 진출하는 게 목표”라며 “앞으로 K-리그 구단 및 대학팀들과 협조를 해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16강을 넘어 8강까지 진출할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가 많다”며 “그런 선수들을 옳은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게 내가 해야 할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독일월드컵의 짧은 준비 기간 때문에 대표팀의 근간이 되는 K-리그 및 대학팀들과 많은 협의를 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낸 베어벡 감독은 “K-리그와 대학팀은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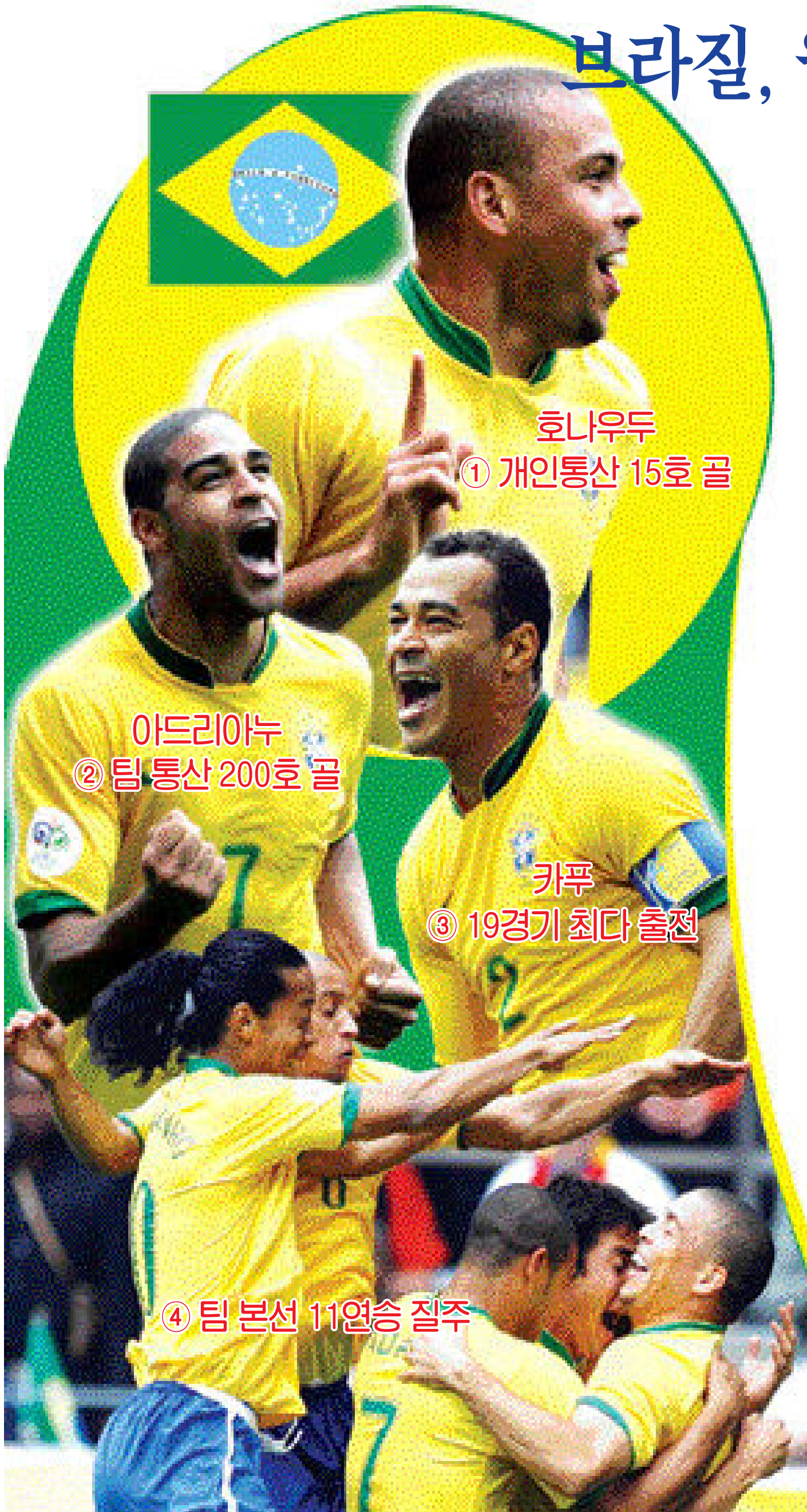
팀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베어벡 감독은 특히 “대표팀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감독 혼자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며 “국내 축구 구성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언론과 축구팬들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학팀과도 충분한 협의할 터”

자신의 축구 철학에 대해 “기본적으로 압박과 열정적인 축구를 좋아한다”며 “한국적인 축구에 네덜란드식 축구의 아이디어를 접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사용할 전술에 대해 베어벡 감독은 “전술은 중요한 부분이다. 모든 코칭스태프 구성을 마치고 장기계획을 확정짓는 뒤 8월부터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브라질, 월드컵 역사 네번 다시 썼다



호나우두
① 개인통산 15호 골

아드리아누
② 팀 통산 200호 골

카쿠
③ 19경기 최다 출전

④ 팀 본선 11연승 질주

가나와 16강전서 대기록 달성

브라질이 독일월드컵 16강전 가나와의 경기에서 3대 0 대승을 거두며 기록 잔치를 벌였다.

이날 경기에서 브라질은 월드컵 역사를 다시 쓰는 새로운 기록을 잇따라 쏟아냈다.

우선 월드컵 11연승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2002년 한·일 월드컵때 7연승 우승을 차지한 브라질은 이번 월드컵 조별 리그 첫 판에서 크로아티아를 꺾으며 8연승 신기록을 수립했고, 이어 조별 리그 2경기와 16강전 승리를 보며 연승 기록을 '11'로 늘렸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결승전에서 프랑스에 패한 이후 무패 질주 중인 브라질은 이제 58년·66년 2개 대회에 걸쳐 자신들이 수립한 역대 최다경기 무패 기록(11승2무) 경신에 도전한다.

순위	선수	연도
15	호나우두	1998-2006
14	게르트 뮐러	1970-74
13	취스트 폰텐느	1958
12	뮐러	1958-70
11	위르겐 클린스만	1990-98
*	산드로 코초시스	1954
10	가브리엘 바티스투타	1994-2002
*	카리 리네커	1986-90
*	테우필로 쿠빌라스	1970-78
*	그레고르스 라토	1974-82
*	펠루트란	1954-58

출생	1976년 9월22일
키	183cm
체중	82kg
소속팀	레알마드리드
2002년 월드컵 골든슈 수상	
2006년 월드컵 월드컵 통산 15호골	

브라질은 또 세계 최고의 골잡이 호나우두는 1골을 추가하면서 월드컵 통산 15호 골을 기록, 독일의 게르트 뮐러가 가지고 있던 14골 기록을 갈아치웠다.

브라질은 이밖에 ‘매직 4인방’의 한명인 아드리아누가 넣은 두번째 골로 월드컵 본선에서 처음으로 통산 200호 골을 기록한 팀이 됐다. 100호 골은 지난 1970년 멕시코 월드컵 결승전에서 축구황제 펠레가 기록하면서 브라질의 월드컵 3회 우승을 결정지었다. 브라질의 월드컵 본선 첫 골은 1930년 대회 때 유고슬라비아를 상대로 넣은 골이었다.

팀 통산 득점은 브라질에 이어 독일이 186골, 이탈리아가 116골, 아르헨티나가 112골, 프랑스가 89골로 뒤를 잇고 있다.

브라질의 주장인 노장 카쿠(36)는 이날 경기까지 월드컵 본선에서 19경기에 참가해 역대 브라질 대표선수 가운데 본선 최대 출전선수 기록을 세웠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호나우두 “끊임없이 골 넣고 싶다”

15골로 월드컵 개인통산 최다골 신기록을 갈아치운 브라질 대표팀 스트라이커 호나우두(29-레알 마드리드)가 득점에 대한 강한 의욕을 내보냈다.

28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스포츠전문 매체 ‘스포즈24’에 따르면 호나우두는

가나와의 16강전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축구역사의 한 단면을 장식하는 것에는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호나우두는 “최근 몇년간 부단히 노력한 끝에 신기록이라는 ‘열매’를 얻었다”

면서 “그러나 앞으로도 더 많은 골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끊임없이 골을 넣고 싶다”는 호나우두는 “나의 기록에 대해 고구 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면서 “팬들이 분명히 추세를 보이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나우두는 마지막으로 “우리 팀이 승승장구하고 있고 골도 많이 넣어 매우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없이 남은 팀들만 남았다

‘유럽 6 + 남미 2 = 8강’

이번을 허락하지 않는 2006독일월드컵 축구대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우승후보를 가리기 위한 ‘8통(籠)’이 확정되면서 세계 축구팬들의 열기가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5일(한국시간) 독일-스웨덴전을 시작으로 28일 새벽 스페인-프랑스전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린 16강전에서 독일(A조), 잉글랜드(B조), 아르헨티나(C조), 포르투갈(D조), 이탈리아(E조), 브라질(F조), 프랑스(G조), 우크라이나(H조) 등 8개국이 3라운드에 진출했다.

▲독일-아르헨티나(1일 0시·베를린) 아르헨티나는 역대 A매치에서 독일과 모두 10차례 맞붙어 4승3무3패로 약간 앞섰지만 공교롭게도 양팀은 12골씩 기록,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

특히 이번 월드컵에서는 독일 대표팀에서 공격의 ‘핵’으로 떠오른 루카스 포돌스키와 ‘제2의 마라도나’로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 내달 1일부터 8강전

결승전	7.10 03시 베를린
3·4위전	7.9 04시 스투트가르트
75 04시 도르트문트	76 04시 베를린
71 04시 뮌헨	72 04시 뮌헨
73 04시 베를린	74 04시 베를린
75 04시 베를린	76 04시 베를린
77 04시 베를린	78 04시 베를린

필할 신인왕 경쟁이 흥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우크라이나(1일 4시·함부르크)

세계 최고의 골잡이 안드리 셉첸코가 포진한 우크라이나가 ‘빛장 수비’의 대명사인 이탈리아의 골문을 열 수 있을지가 관심이 다.

셉첸코는 지금까지 2골 1도움을 주며 점차 물오른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셉첸코가 있다면 28년만에 월드컵 정상 탈환을 목표로 하는 이탈리아에는 공격을 주도하는 프란체스코 토티가

있다.

이탈리아 플레이메이커인 토티는 16강전에서 페네타리키를 성공,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호주를 침몰시키기도 했다.

▲잉글랜드-포르투갈(2일 0시·겔젠키르헨)

잉글랜드와 포르투갈의 간판 스타인 데이비드 베컴과 루이스 피구가 벌이는 중원 싸움이 큰 볼거리다.

게다가 잉글랜드 ‘공격의 핵’ 웨인 루니와 포르투갈의 ‘젊은 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치열한 신인왕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여 관심을 더욱 끌고 있다.

▲브라질-프랑스(2일 4시·프랑크푸르트) 브라질은 1998년 프랑스월드컵 결승 당시 프랑스에 0-3으로 패해 챔피언 자리를 내줬고 호나우두는 지네딘 지단의 명성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성장한 호나우두는 프랑스와 16강전에서 예전의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올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티에리 앙리(아스날)를 보유한 프랑스의 전력도 만만치 않아 쉽사리 승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